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하태화 글라라 (토현성당·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 당선)

입 당 송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 1 독 서 이사야서 2,1-5

화 답 송 시편 98(97),1,2-3ㄱ,3ㄴ-4,5-6 (◎ 2 참조 또는 3ㄴ)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후렴)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2.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

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4.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로마서 10,9-18

복 음 환 호 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오 28,16-20

영 성 체 송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보혁명과 전교 주일

20세기 말에 시작된 정보혁명은 일상과 세계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켜 왔습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주도하는 이 혁명은 신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신앙정보의 폭증을 불러와 종교심정보다는 종교이론으로, 체험과 감동보다는 논리와 깨달음으로 '신앙의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신앙 지식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그 실천은 도리어 줄었습니다. 또한 정보혁명의 수단인 전자매체의 즉각성, 직결성, 즉흥성, 용이성 등에 익숙해지면서, 개인의 필요에 따른 종교의 선택과 포기도 신속하게 직결적으로 편리하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빠른 소비주의를 부추겨 '신앙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혁명 시대에 맞이하는 '전교 주일'은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다가옵니다. 전교 활동은 신

심 깊은 열혈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지, 자신처럼 평범한 신앙인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 가두선교의 실효성이 '과거형'으로 의심받는다 해서 전교 자체를 방기한 건 아닌데도, '가두선교 중단'이 '전교 중단'과 동일어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선물로 받았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선물을 온 세상에 가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마태 28.19-20 참조)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내밀한 소망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교를 힘들고 부담스런 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혁명 시대와 부합하는 즉각적이고 직결적이며 즉흥적이고 편리한 전교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

디서든 누구와 동석하든, 식사 때마다 '식사전후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모임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식사전후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원을 일깨워주며, 동석자에겐 가톨릭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식사 직전에 기도를 하면, 식사 중에 신앙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처럼 손쉽고 간단하고 작은 실천마저도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렇다면 훗날 주님께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시면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마태 10.32-33 참조)

송 현

로마노 신부
부산가정성당 주임
겸 가정사목국장



유전
한보



캘리그래피.
김태자 베르베두아 (양산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0.25(월)~26(화)
송현 신부(부산가정성당 주임
겸 가정사목국장)

10.27(수)~30(토)
정우학 신부(노동사목 이주노동담당)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운진 비비안나

10.26(화) <가톨릭 문화살롱>
출연 : 가톨릭영화프로그램서번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10.26(화) 13:00~14:00
진행 : 표용운 신부(가야 부주임)

<부산 맛집 탐방 '오데가꼬'>
출연 : 정지윤 신부(성모여교 교목)

아궁이 불을 지피며

내가 자랐던 시골집에는 정지라 불리던 부엌과 아궁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시골집에 갈 때면 아궁이에 불부터 지핀다. 혼자서 버터주는 오래된 집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성냥 하나를 켜서 마른 짚에 불을 붙인 후 아궁이 속에 넣고, 잘 마른 잔가지들을 조심스레 그 위에 얹는다. 그리고는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불이 잔가지에 옮겨붙도록 조심스레 부채질을 한다. 잔가지에 불이 붙으면 그제야 나무 장작을 아주 조심스레 넣는다. 이때 장작의 무게가 잔가지의 불꽃을 꺼뜨릴 정도가 되어선 안 된다. 마치 깃털을 얹은 듯 가볍게 느껴져야만 서로 불을 나눠 갖는다. 그렇게 옮겨붙은 장작불은 아궁이 안에서 함께 춤을 추며 가마솥을 데우고 아궁이 속과 구들장을 데우고 방을 데워 온 집을 따뜻

하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일부러 시골집엘 들렀다. 흙과 돌과 나무로 된 혼자 남겨진 이 낡은 집이 잦은 비에 흑시라도 힘을 잃고 주저앉아버릴까 염려되어서다. 그런데 좀처럼 불길이 살아나질 않았다. 애써 종이에 불을 붙여 잔가지를 얹으면 어느새 꺼져 버리고, 잔가지에 용케 불이 붙었다 싶어 장작을 얹으면 또다시 힘없이 꺼져 버렸다. 아궁이 안을 들여다보며 부채질을 하느라 눈물 콧물이 툭툭 떨어지고 연기로 목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참을 아궁이와 불과 장작을 바라보며 애를 태우다 그제야 알았다. 한참 동안 온기가 없었던 아궁이 안은 더없이 차고 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니 불을 제대로 지피려면 우선 아궁이 안의 차고 습한 기운부터 달래야 했던 것이다.

사람도 아궁이 같다. 따뜻함에 익

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어둡고 차가울 수 있다. 이때의 '그'는 내 이웃일 수도, 내 가족일 수도, 그리고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이러한 그를 위해서는 한층 더 부드러운 인내의 사랑이 요구된다. 그러니, 왜 빨리 불씨가 살아나지 않느냐며 불 지피기를 금세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랑은 나와 세상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며 눈물 콧물 흘려가며 부채질하는 낮춤이자 정성이자 노력일 것이다. 사랑이 하찮은 것처럼 무시되는 물질만능의 현대 사회에서 다시금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길 기도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1코린 13.4.6)

▣ 박 선 정 헬레나

남천성당 · 인문학당 달리 소장
whitenoise99@hanmail.net



42. 피정

피정 영상
바로보기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곧 시작할 공생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에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하느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을 때 광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것이 전통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피정'이 된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휴가를 내고, 피정할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 피정을 본당에서 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피정의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은 아닐까 합니다. 피정의 본질에 눈을 돌려 자기의 내적, 외적 집착에서 떠나고, 마음의 초점을 하느님께 향하며,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작고 소박하지만 하느님께 응답하면서 하느님과의 눈맞춤을 계속한다면 장소나 시간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상이 피정이 되길....



지난 2020년 10월 4일은 가톨릭 해양사목(Stella Maris, 이하 스텔라마리스)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에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는 해양사목의 발원지인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로 두차례 순연된 뒤, 사실상 기념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전개된 이후, 수많은 상선과 무역선이 오대양을 오가게 되고 세계는 하나의 마을,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버린 외국인 선원들이 항구에 닿을 내리면,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교회가 발 벗고 나서서 선원들을 환대하고, 심터를 제공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와 나눔으로써 해결해주었습니다. 글라스고항에서 시작된 지역교회의 자선사업이 바로 스텔라마리스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글라스고 교구의 제청으로 비오 11세 교황은 스텔라마리스를 국제적인 사목 단체로 승인하였으며, 1920년 10월 4일 글라스고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가 스텔라

마리스 공식 설립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관할 하에

있는 스텔라마리스는 41개국 330개 이상의 부두에서 사목자 230여 명을 비롯해 평신도 봉사자까지 1,000여 명이 활동하는 국제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 정박한 선박을 연간 7만 회 이상 방문하며, 미사와 성사, 상담, 물품 나눔 등을 통해 고된 작업과 외로움 속에서 일하는 선원들을 위로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교황청의 제안으로 1978년 부산에서 최초로 해양사목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부산교구 해양사목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다른 나라 해양사목과는 달리 선원만을 사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육지에 남겨진 해양가족들을 위한 사목 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1979년 독일 미시오(Missio)를 통해 부산교구 해양사목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원조를 받아, ‘가톨릭 센터’ 건립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통해, 가톨릭센터 7층을 해양사목 사무실로 배당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교구 해양사목의 가장 큰 활동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을 방문해 선원들에게 영적, 물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선활동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두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선원들을 위한 방역 물품과 격리시설에 있는 선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양가족들을 위한 월미사(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뿐만 아니라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및 미국인 해양 가족 공동체를 위한 영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해양사목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인 ‘해양수산인의 날’은 현재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바다의 날(5월 31일)의 근간이 된 유래 깊은 행사입니다. 이외에도 선원 고통 상담, 선박 축복식 등 해양사목이 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스텔라마리스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교구 해양사목 홈페이지(<http://stellamaris.catb.kr>)를 재 단장하고, 해양사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사사진 갤러리를 개설하였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 부산항은 환적화물 기준 세계 6위의 위상을 가진 만큼, 수많은 국내외 선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코로나19로 입항하더라도 많은 경우 하선이 허락되지 않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선원들을 위한 복지와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 교구민들께서도 선원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51)464-2707 [후원계좌] 농협 301-0090-2199-77(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 Ecce Ego, Mitte Me?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이사 6,8) ✠✠

지난 2019년에 열린 '제2차 평신도 아카데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공동합의성)을 제안하셨기에 '함께 가는 교회-공동합의성'을 주제로 현대교회가 걸어야 할 길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21년은 한국인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입니다. 한국 교회 성인 역사상 최초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님'은 조선의 계급사회 속에서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하여 한국 가톨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한국 교회의 귀중한 유산인 순교 영성을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세우

고, 신앙이 주는 참 기쁨을 부산 교구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총대리 신호철 비오 주교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주제 강연을 통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을 탁희성 화백의 그림과 함께 살펴본 뒤 현대 사회의 삶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주제 강연 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즉 사상적/제



도적으로 폐쇄적인 조선사회의 빚장을 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대로 당신의 처지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내신 분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바라보며 오늘날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에 몰려 영육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위로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시현 가브리엘라 전포성당 · 교구평협 교육분과위원장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일시 / 11.6(토) 13:30~16:30 장소 / 남천성당 대성전

대상 / 교구민 전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인원 조정)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첫 번째 실천사항인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의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위한 성구가 매주 게재됩니다.

1년간 하단의 성구 위에 따라 쓴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절취선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마태 28,19~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전례 봉사자 교육

‘전례 봉사자 교육’이 지난 10월 14일(목)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선 교사목국(국장 : 이장환 신부)주관으로 실시됐다.

오는 11월 18일(목)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례와 미사의 본질, 원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범일성당, 성 김대건 신부님 유해 안치식

9월 19일(일)
주임 : 윤용선 신부
회장 : 이순호 그레고리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0월 10일(일) / 주임 : 이창주 신부



10월 10일(일) / 주임 : 김태균 신부, 회장 : 최창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0월 10일(일)
주임 : 이재혁 신부, 회장 : 이학숙 글라라



10월 10일(일)
주임 : 이강우 신부, 회장 : 김병년 베드로

위령의 날 미사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의 날’ 야외 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2. **미사 생중계(유튜브)**
11월 2일(화) 10:30
- 교구장 주교님, 교구청, 대리구청 사제단 공동집전
- 교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가톨릭라이프부산’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 (현장 참석 불가)
3. 미사지향 및 예물 접수
- 기 간 : 11월 1일(월)까지
- 접수처 : 하늘공원 사무실 (전화접수 055-374-8733)
* 미사예물은 반드시 전화 후 입금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1일~10월 17일]

소계 : 1,705,000원

모라성요한성당 1,145,000	신유정 20,000
명지셋별Pr. 10,000	성기미 10,000
이재희 300,000	강정미 20,000
탁부영 100,000	이정희 100,000

누계 : 913,619,94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농협 301-0267-8167-11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서울공예사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가톨릭) · 김경자(모니카)	조은 모바일 크레인 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답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지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www.insanlove.com 대표. 김기룡(야고버) 죽염, 유황오리진액, 후두액, 천환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습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사회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률,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	세인요양병원 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병원장. 오 서 영(마리아) 상담문의 501-7500 부산 동래구 여고로 5 (사직동)	SNU서울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정민(가브리엘)	가인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 이용 상담 및 신청 대행 국비지원(100-85%)으로 자택 돌봄 교우 요양보호사 모집 및 대기 중 민 병 덕(사도요한) 010-7448-7858	(주)가나안보청기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원산지 : 독일 * 교우특별우대 * 전세계 모든 브랜드 A/S가능 김도현(모세) 010-7674-2828

교 구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 공모전

기간 : 11.14(일)~12.5(일)
주제 : 성가정 21가지 미션수행 체험담
분량 : 200자 원고지 6매 이상
시상 :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3명, 30만원)
문의 : 각 분당 사무실(공문 열람)

기관·제 단체·위원회

가톨릭음악협회 성음악사랑 후원회 감사미사

· 10.25(월) 19:30 · 가톨릭신학대학대성당
연주 : 플레나양상블 / 주례 : 임석수 신부
문의 : 010-2084-3903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10.29(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 (사무실)

우리능 물류팀 구함

자격 : PC가능(한글), 1종보통면허증소지
서류 : 본당신부님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 464-8495~6, E-mail, woori-pusan@hanmail.net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0.27(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0.29(금) 21:00~23:00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 몸이 불편해서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 분 / 파견교리(본당) :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 462-0334(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교육·모집·기타

들꽃마을 부산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10.25(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54)955-4133~4

성분도어머이집(요양원) 조리원 구함

조리원 2명(음식조리 가능하신 분, 자격증 무관)
근무 : 2교대(06:00~16:00/09:00~18:00)
문의 : 752-2982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

원서접수 : 11.1(월)~26(금) / 모집인원 : 20명
대상 :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배경 청소년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 (061)432-9241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심영성센터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 10.27(수) 14:00~17:00
자살유가족 마음돌봄피정 : 10.30(토) 13:00~17:00
문의 : 010-8811-6187

해독,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매주 목~일 (3박 4일)
·성모솔숲마을 / 지도신부 : 박상호 신부
문의 : (054)373-3955, 010-6630-381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문의 : (02)2274-1843~4, www.cdcc.co.kr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 12.6(월) 14:00
원서접수 : 11.1(월)~12(금) 17:00 / 문의 : (02)2258-7076(대학원교학팀), (02)2258-7107(조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과정 신입생 모집
접수 : 11.1(월)~12(금)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 (053)660-5252~4, 010-6563-0409



성서사도직 온라인 축복받은 성경읽기 신청

[기간] 10월말~2022년 1월말 [대상] 쉽게 성경을 읽고 싶은, 관심있는 모든 신자

[준비물] 성경, 축복받은 성경읽기교재 [문의 및 신청] 519-0485, 010-3968-6310

개강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시간/요일	월	화	수	목	금
10:00~11:30		토빗/유딧/에스테르기	사무엘기	신명기	창세기
14:00~15:30	레위기	창세기	토빗/유딧/에스테르기	레위기	사무엘기
19:30~21:00	사무엘기	신명기	창세기	토빗/유딧/에스테르기	신명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5.10.26.

김성도(모세) 신부님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전형 :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접수기간 : 11.3(수)~11.16(화)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문의 : 일반전형 510-0742 / graduate.cup.ac.kr
외국인전형 510-0862~4 / kwak@cup.ac.kr

부산성모병원

독감 예방접종 하셨나요?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대비 온 가족
안전하게 미리하는 독감예방접종!

문의 : 933-7242, 7265(내과)
933-7988~9(소아청소년과)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길맥흉부외과</p> <p><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 고주파, 레이저, 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p>	<p>김용기내과의원</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 용 기 (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독일보청기</p> <p>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 (아브라함) 송 (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월대로 229. 수인역 7번출구 앞 2층</p>	<p>(주)금 정 소 방</p> <p>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진호(보나벤투라) 514-0119 010-8516-0119</p>	<p>정대수맑은신경과</p> <p>(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 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희갑·불면 증 남천역 3번출구 612-6100</p>
<p>내일N성형외과</p> <p>최수중 (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비봉병원 2층) / 서구청 옆</p>	<p>동래광안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야베스)</p>	<p>해 맑 음 농 장</p> <p>해남땅끝절임배추 신지배송 1박스 20kg 농협 김은채 302-14793-19871 대표. 김해갑 (베드로) 010-7929-8779</p>	<p>스툼화상영어</p> <p>1:1영어면, 비대면 화상 영어수업 파닉스, 스토리북, 프리토킹, 필리핑 직접인 비즈니스코스, 성인회화 무료 체험 수업 제공 및 친절 상담 변지영 010-4435-0441 (리브가) www.stormenglish.kr</p>	<p>명수울산주단</p> <p>결혼예복, 혼수예단, 계량복 노영옥(베르타) 632-2656 010-3551-2656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11~212호 (4호선 3리안)</p>